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강화

전주시보건소, 중증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 34→64명 확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 맞춤형 보건으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방문재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전문요원이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재활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는 지난해 34명이었던 대상자 수를 올해 64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려 일상생활 활동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방문재활서비스는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지며, 신청 및 일상생활기능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민들은 재활전문(대재인 병원)의 재활 처방을 받은 후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자택을 방문해 관절가동범위운동과 근력강화, 기능훈련, 체위변경 등 1:1 재활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심뇌혈관 예방법 △구강관리법 △낙상 예방교육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

게 되며, 시는 가옥 내 낙상 발생 위험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료센터로 연계해 가옥수정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함으로써 많은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 권익 보호

전주시 덕진구, 불이익 방지 위한 다양한 취득세 신고 안내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지방세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일례로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만 알고 있으나, 그 밖에도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구조변경 △임시 가설 건축물 축조 △엘리베이터나 주유기 등 시설물 취득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 신고해야 하는 원인과 세율도 다양하고 복잡

하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차량은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신고·미납부 하는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덕진구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고 기한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유형별 추정 사유 등 맞춤형 유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여 시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규성 덕진구 세무과장은 “먼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혁신도시 악취 개선 위한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주민 12명, 3월부터 활동 돌입

전주시가 전주·임주 혁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인근 축산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감시 활동에 나선다. 시는 전주혁신도시 내 10개 아파트 거주민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명의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단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악취모니터링단은 전주혁신도시 안

에서 일정 시간 이상 가축분뇨 악취가 확인됐을 때 스마트폰 밴드를 활용해 악취가 확인된 위치와 강도 등을 보고하게 된다. 이후 시는 악취모니터링단의 보고를 기반으로 악취 발생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도와 인접 시·군에 악취 발생 사업장 점검을 즉시 요청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21일 악취모니터링단을 대상

으로 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이뤄진 이번 교육에서는 악취 종류 및 강도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제조한 악취 시료들을 통해 악취를 분별하는 방법과 보고 매체인 스마트폰 밴드 활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배치된 악취모니터링단을 통해 악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경찰의 꽃’ 총경 승진… 전북경찰청서 3명 배출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자리에 전북경찰청에서 3명을 배출했다. 경찰청은 104명의 총경 승진 예정자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104명의 대상자 중 전북청 소속으로 는 모두 3명이 승진예정 대상이 됐다.

소준관(일남) 전북청 홍보계장과 양재승(건부후보생 50기) 전북청 강력계장, 한민(간후 52기)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이 이날 발표된 예정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뉴시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합리적 운영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토·공휴일 제외한 실질적 감사 기간 산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

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2011년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감사 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법,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기간 산정시 공휴

일과 토요일은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 사무 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해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 고속도로 공사현장 긴급안전점검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27일 관내 고속도로 공사현장인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장 내 교량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는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에 박덕규 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공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화재 예방 및 적극적인 위험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은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인 만큼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소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27일 관내 고속도로 공사현장인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은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인 만큼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소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앞으로도 공사현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육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